

†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금주 미사 독서: 조남석 베드로, 한진 베드로
 다음주 미사 독서: 오재영 제노, 유현형 사도 요한
 금주 미사 복사: 최고은 소피아
 다음 주 미사 복사: 윤지희 데레사
 금주 미사 해설: 우명희 가타리나/권민호 바오로
 다음 주 미사 해설: 성인영 마리스텔라 /
 윤보연 소화데레사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회 계: 한진 베드로,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3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 (12월 28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다음 기도모임 9월 첫주 금요일(장소 계시관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장소: Tumbledown Trail)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바실리오 성인은 나눔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지 않는 빵은 굶주린 사람들의 빵이고, 너희의 옷장에 걸어 둔 입지 않는 옷은 헐벗은 사람들의 옷이다. 너희가 신지 않는 신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의 신이고, 너희가 금고에 깊이 넣어 둔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다. 너희가 실천하지 않은 자선 행위는 너희가 범하게 되는 수많은 불의(不義)이다.”

성인의 이 말씀은 저의 폐부를 아프게 찌릅니다. 옷장을 열어 보면 일 년 동안 입지 않고 보관만 해 온 옷들이 많고, 책장을 바라보면 읽지 않고 먼지만 쌓여 있는 책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 지갑의 두께는 두툼합니다. 생각해 보니, 한 해 동안 땀 흘리는 일 별로 없는 가운데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하면서 제 자신을 속였습니다. 이제 중독이 되어서 그런지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실천에서 완성이 된다고 하였는데(2,14-26 참조), 실천에 이르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저의 믿음은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자선 주일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한 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입니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248
 교무금: \$ 650
 감사헌금: & 100 (한병철 바오로)
 합계: \$ 998
 봉헌봉사: 윤보연 소화데레사
 다음주 봉헌봉사: 조성익 토마스모어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주임 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거주사제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바오로

(608) 628-7977

[대림 제 3주일]

<제 1 독서> 스바니아 예언서, 3, 14-18

<제 2 독서> 필리피서, 4, 4-7

회답송

◎ 기뻐하며 외쳐라.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복음, 3, 10-18
 그때에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옷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오늘의 성가] 시작: 92 봉헌: 216 성체: 188 파견: 90



매디슨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Madison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12월 15일



베풀로 초대하시는 하느님

서공석 신부

오늘 복음은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요구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립니다.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한은 군중에게는 옷과 먹을 것을 사람들과 나누라고 권합니다. 세리에게는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말라’고 하며, 군인에게는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타이릅니다. 그 가르침은 당시 유대교가 요구하던 것과는 다릅니다. 요한은 율법을 잘 지키라거나, 성전에 십일조와 제물 봉헌을 잘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은 “돌보아주고 가없이 여기는 선한 분”(출애 33,19)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제물봉헌이 있는 것은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분의 일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자각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이웃에게 실천하게 합니다. 제물봉헌은 인간이 생산한 것을 하느님 앞에 가져와 바치면서, 돌보아주고 가없이 여기시는 하느님을 자각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자기가 얻은 소출을 새롭게 보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상징적 의례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이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소중히 생각하는 삶을 버리고,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이웃을 위해 실천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군중과 세리와 군인이 삶을 바꾸는 구체적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자각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이웃을 위해 실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요한의 설교에는 다소 위협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공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요한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어떤 동질성을 지녔다고 그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믿고 있는 하느님은 엄한 심판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믿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위협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도, 성전에 제물봉헌을 하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가련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보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가련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유대교의 대사제와 백성의 원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당신네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갑니다.”(마태 21,31). 대사제와 백성의 원로들은 율법과 제물봉헌에는 충실하였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시다. 그러나 그들이 죄인이라고 단죄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였다는 말입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연장하여 예수님이 발전시킨 점은 사람이 하느님을 생각하고 자기 삶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시대 다른 세례운동가들과 달리,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더 발전시키셨습니다. 다만 요한이 엄하게 심판하길 하느님을 전제하고 말하는 반면,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느님,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느님을 믿고 계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면서 삶을 가르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삶을 배워서 사람이 됩니다. 신앙인은 하느님의 생명이 하시는 일을 배워 실천하면서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옆면에 이어서)

† 공지사항

1. 1. St.Paul 특별 모금 안내

- 기간: 대림 기간 4 주, 크리스마스 전까지

- 모금액 목표: \$2,000

2. 미사후 사목회의가 있겠습니다. 사목위원, 각 구역장님, 성모위원님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꽃을 상기시키면서(마태 6,26-28) 하느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깨달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를 큰 잔치에다 잘 비유하셨습니다(루가 14,15-24). 하느님은 우리의 삶이라는 잔치를 은혜롭게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베풀어진 것이지 우리가 공로로써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잔치에 사람들이 초대받듯이, 우리는 초대받아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입장하였더니, 세상에는 우는 이도, 고통당하는 이도, 굶주리고 헐벗은 이도 많이 있습니다. 잔치에서 사람들은 베풀어진 것을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 욕심내지 않고, 이웃과 나누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하느님의 일을 깨닫고 실천합니다. 요한복음서는 “하느님의 자녀 되는 권능을”(1,12) 받은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베푸신 잔치이기에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그 실천을 모범적으로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분개하게 하는, 의롭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인간이 의롭지 않아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행한 일만 보고, 초대 받은 잔치를 비난과 원망과 성토의 장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넘어 하느님이 살려놓으신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불행을 넘어 은혜로우신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신앙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은 삶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삶을 바꾸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생명을 베푸신 분의 뜻을 따라 하느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삶을 바꾸자고 가르쳤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련히 여기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보고, 베풀어진 우리의 삶을 이웃과 나누는 잔치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초대하신 하느님이 베푸시는 분이라 우리도 그 베품에 참여합니다.

인류 역사는 남을 억누르고 빼앗으며, 행세하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역사 안에 태어난 우리도 즐겨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이 구원인 것은 억누르고, 빼앗고, 죽이는 삶에서 베풀고 용서하는 은혜로운 삶으로 옮겨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가르친 엄한 심판을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하느님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느님은 축복하고 베푸십니다. 우리도 그것에 참여하여 축복하고 베풀며 기쁨을 나누라는 초대입니다. 초대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제 2 독서에서 바울로 사도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기쁘고 즐겁기만 한 세상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기쁨과 너그러움으로 채색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